

# 서민 고흥 빼먹는 불법 대부업체

## ‘1000% 살인 이자’에 폭언·협박 예사 수십만원 빌렸다가 수천만원 빚질 판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사회의 독버섯 불법 대부업체의 탐법 영업과 횡포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에 손을 내밀었다가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광주에 사는 L(30)씨는 지난 7월 8일 광주시 서구 삼촌동 한 상가 안에 있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찾았다. 친구에게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였다. L씨가 빌린 돈은 70만원. 그러나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20만원을 떼고 L씨의 수중에 떨어진 것은 50만원. 상환기한은 10일이었다.

실직상태인 L씨는 기한 안에 이를 갚지 못했다. 대부업체 주인 강모(41)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L씨에게 인감도장과 주민등록등본, 통장, 체크카드 등을 가져올 것을 요구한 뒤 이를 토대로 1천5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케했다. 이 과정에서 폭언과 협박도 서

슴치 않았다.

강씨는 또 L씨의 부모를 찾아가 차용증을 보여주며 현금 120만원을 빼앗아 가기도했다. 특히 L씨 명의로 1천만원 상당의 이른바 ‘대포차(무적차량)’를 구입해 일이를 되팔려고 시도하는 등 강씨의 횡포는 극에 달했다. 수십만원 빌렸다가 수천만원 빚더미에 앉을 판이었다.

5개월여동안 온갖 협박을 당한 L씨는 결국 경찰을 찾았다. 광주서부경찰은 25일 강씨 등 무등록 대부업자 2명에 대해 대부업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70일동안 불법 사채

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광주·전남 지역 불법 대부업자 188명을 적발했다. 이 기간 중 광주경찰은 112명의 불법 대부업자를, 전남경찰은 66명을 각각 입건했지만 불법 대부업은 더욱 은밀화되고 있다.

당시 경찰에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들은 최고 1천%에 가까운 연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는 것은 물론, 협박과 폭언도 다반사로 하는 것으로 수사 결과 나타났다. 또 대부업체 상당수가 조직폭력배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달 초 경찰에 구속된 광주지역 모 폭력조직 행동대장 문모(47)씨는 2006년 6~8월 친구 명의로 대부업체를 등록하게

한 후 1억원을 투자해 92명에게 6억3천500여만원을 무등록 대부해 주었으며, 김모(41)씨는 최고 542%의 연이자로 사채를 빌려준 뒤 불법 추심행위를 해오다 달미를 잡혔다.

또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광주와 충남 천안지역 영세 상인 등 1천74명을 상대로 29억3000여만원의 사채를 빌려주면서 법정이자율(연 49%)을 초과한 연 120~807%의 이자를 받아 9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도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연 49%를 넘는 이자는 불법이므로 49%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데도 피해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사채업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나원침 (7688) 김중우



# 기막힌 ‘아파트 돌려막기’

## 3억으로 73채 굴리다 이자·보증금 못갚아 사기혐의 구속

3억 원을 밀친 삼아 아파트 73채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벌인 40대 업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와 보증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결국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재권)는 25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로 임대사업을 벌여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준 고모(4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가 아파트 임대사업에 나선 것은 지난 2001년. 3억 원으로 광주시 북구 일대에 아파트 4채를 구입

한 고씨는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여기에 전세까지 내놓으면서 임대 보증금도 챙겼다.

고씨는 이 돈으로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했고, 이렇게 사들인 아파트는 5년 만에 무려 73채나 되면서 ‘부동산 거부(巨富)’가 됐다.

당시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이 아파트 시가의 60% 이상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고씨는 금융기관 대출을 최대한 이용했다.

하지만, 속 사정은 달랐다. 임대를 내놓은 아파트 73채의 임대차 보증금 채무가 34억여원, 은행 대출금 채무가 25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매월 은행 대출금 이자가 1천500만원이 넘었다.

반면 고씨가 소유한 아파트 시가는 모두 42억원 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고씨가 가진 빚은 17억원이 넘는 셈이었다.

이 때문에 임대 보증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고씨는 결국 많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2005년 10월 부동산

매매 잔금을 내지 못해 아파트를 가압류 당했다.

그러나 고씨는 이러한 과도한 부채 등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지난해 2월까지 심모씨 등 19명으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7억3천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고스란히 고씨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됐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아파트 경매 처분으로 거리로 내몰리거나 ‘올벼 거저막기식’으로 채무인수 조건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소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성실한 서민들로 지극히 자신들이 피해 홀려 모은 돈”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사건 신고했다 억울한 벌금형 40대

## 3년 법정싸움 끝 무죄 판결

사건 신고자가 도리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3년간의 법정싸움 끝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광주지법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고모(48)씨는 3년 전인 지난 2005년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술집에서 업주와 손님들이 술값 문제로 싸우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고씨는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는 위험

한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급한 나머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서 두암지구대 A경사의 팔목을 붙잡아 당했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발이 엉키면서 넘어졌고, 신체 일부가 잡혀있던 A경사도 함께 쓰러졌다.

A경사는 “경찰관의 팔을 비틀어 쥐고 장갑이를 걸어쳤다”며 고씨를 체포했다. 지구대로 끌려간 고씨는 거칠게 항의했지만 경찰은 이를 협박으로 규정하고 검찰에 송치했고, 고씨는 결국 공무집행방

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했고, 최근 항소심에서 사건 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경현)는 당시 술집에 있던 목격자들과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사건을 신고한 고씨가 A경사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지구대에서 큰 소리로 항의한 점 역시 신고자로서 수갑을 차게 된 억울함을 표시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여수서 선원 2명 실종

25일 오후 3시께 여수시 돌산읍 계동 남서쪽 2km 해상에서 여수선적 통발어선 ‘복음호(5.6t)’와 배에 타고 있던 선장 강모(47)씨, 강씨의 형(61)이 실종됐다. 여수해경은 경비함정 4척과 헬기 1대를 동원해 현장 수색에 나섰지만, 선박에 실려있던 어구만 일부 발견했다.

해경은 이날 회항을 하던 강씨가 ‘배가 위험하다’는 말을 가족에게 했다는 정황으로 미뤄 배가 파도에 휩쓸려 침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막 및 상담안내

성탄절 교회 헌금함 텅다 덜미

○성탄절 전날 교회에 몰래 들어간 헌금함에서 돈을 훔쳐려 한 20대가 교회 관계자에 붙잡혀 경찰서행.

○광주광산경찰은 25일 전날 밤 11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H교회에 들어가 헌금함에 들어있던 돈을 훔쳐려 한 김모(29·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씨를 절도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잡혀있던 교회 지하 예배실 창문을 열고 침입해 헌금함 투입구에 미리 준비해간 기다란 철사를 집어넣어 돈을 훔쳐려다가 때마침 교회 앞을 지나던 교회 관계자에게 덜미를 잡힌 것.

○과거 화물차에서 500원을 훔치다 입건되기도 했던 김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성탄절이어서 교회에 돈이 좀 있을 줄 알았다. 배가 고파서 훔쳤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총장로 성탄 인파 무자년(戊子年)이 저물고 있다. 올해는 유난히 일도 많고, 탈도 많은 한 해였다. 그러나 한 해의 마무리를 다그칠 새해의 ‘희망’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성탄절’인 25일 광주시 동구 총장로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가 세밀의 분주함을 보여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